

# 일본 공공도서관 연수보고

김지봉, 문영순\*

目次	연수 추진 경위
	오사카 아사이(旭)도서관
	나라(奈良)현립도서관
	도쿄도립 다마(多摩)도서관
	우라야스(浦安)시립중앙도서관
	이찌가와(市川)시립중앙도서관
	치바(千葉)시립중앙도서관
	오사카(大阪)부립도서관

## 연수 추진 경위

경기도사서연구회 연구회원 8명을 포함한 13명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의 공공도서관<sup>1)</sup>을 둘러보았다. 경기도사서연구회가 올해 상반기사업으로 제한한 일본 공공도서관 연수사업이 11월에나 겨우 성사된 것으로 참가자들은 모두 자비로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일정은 11월 14일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사카 간사이(關西) 공항에서 일전에 과천도서관을 방문한 바 있는 오사카 아사이도서관 기류히테도(桐生偉人)관장님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면서 오사카 아사이도서관(분관)을 첫 번째로 방문하였다. 15일에는 나라(奈良)시에 있는 나라현립도서관을 방문하였다. 16일에는 도쿄로 이동, 일본도서관박람회를 참관하고 도쿄도립다마도서관을 방문하였다. 17일에는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는 우라야스시의 중앙도서관과 바로 옆에 있는 이치가와시립 중앙도서관 그리고 치바시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였다. 18일에는 다시 오사카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국보급 도자기가 즐비한 동양미술관(한·중·일 도자기를 전시)과 오사카부립도서관을 둘러보았다. 19일에는 오사카시립 중앙도서관과 오사카성(大阪城)을 마지막으로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

\*경기도립과천도서관

1)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쉽게 이해하려면 일본의 지방행정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都: 도쿄도), 1도(道: 북해도), 2부(府: 오사카부, 교토부), 43개의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시 이 전체를 8개의 지방(호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추부, 킨키, 큐슈쿠, 시코쿠, 쿠슈)으로 표시하고 있다. 도쿄도 위치는 칸토오(關東)지방으로 일본 혼슈(本州)의 거의 중앙부이며, 칸토오(關東)지방에는 6개의 현(縣)과 도쿄도(都)가 속해 있다. 오사카시는 서일본 제일의 도시로 도쿄와 함께 일본 상권을 양분하고 있다. 나라와 오사카가 속해 있는 킨키(近畿)지방은 일본열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5개의 현과 2개의 부(府)로 되어있다. 도쿄도의 인구는 1,100만명 이상이며 오사카부는 880만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고밀도의 국제적인 도시이다.

향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연수팀은 일본을 대표하는 두 지역을 오가며 도쿄의 도립도서관 1개관과 현립단위 1개관, 부립단위 1개관, 시립중앙관 4개관, 시립분관 1개관으로 모두 8개의 공공도서관을 둘러 보았다. 방문한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 오사카 아사이(旭)도서관

첫 번째 방문도서관인 오사카 아사이(旭)도서관은 오사카시립도서관의 분관(23개 분관의 하나로 아사이구에 소재한 도서관)으로 장서는 80,000여권, 직원은 총 8명(정사서 7명, 일용1명)이다. 개관시간은 평일 10:00~19:00이고 토·일요일은 10:00~17:00까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2·4주 화요일은 정리의 날로 휴관한다고 한다. 오사카 아사이(旭)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는 약 700만엔으로 중규모 도서관의 이용율을 기준하여 책정된 것이다. 연간 600,000권이 대출된다고 한다.

오사카시립도서관의 특징은 일본 최대규모의 공공도서관인 중앙도서관과 23개의 구단위 분관으로 구분된다. 가급적 모든 자료와 직원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서 및 정리업무는 중앙도서관에서 구입(선정은 분관 사서), 정리 후에 분관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부는 분관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그 결과 분관인 아사이도서관은 자료중심 봉사과 대민 봉사업무만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관들도 전부 이와 유사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우리나라는 도서관하면 먼저 도서관 신축을 생각하지만 오사카지역에는 23개 분관 가운데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2개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21개관은 다른 오사카시 산하의 구민센터, 보건소, 마을회관 같은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 건물이다.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비록 명칭은 분관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료를 대출하면 반납은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하면 되고 반납된 자료는 도서관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운반차에 의하여 정리된다.

자료대출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도서관을 발급하여 실시하는데 일본인 뿐 아니라 재일 외국인도 가능하다.(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대조의 어려움이 있으나 무조건 발급해 줌) 단체대출(문고)은 5명부터 단체로 취급하고 1명당 8권씩, 기간은 5주간 대출해주며 개인대출은 2주간이 기본이다. 도서이외에 비디오 및 CD자료는 각각 2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저작권 관련 법적 처리된 것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과 장애인실(맹인자료실)에서 대면낭독(책 읽어주기)을 실시하고 그 외에 매주 수요일에 그림책 읽어주기가 있고, 공작교실 등의 다양한 강연회가 실시된다.

참고로 오사카시의 인구는 260만인데 오사카시 중앙관 및 23개 분관의 장서는 작년기준으로 276만 책으로 시민 1인당 장서는 1권 정도에 불과하다. 연간대출인원은 278만명으로 시민1인당 1년에 도서관을 한번 이용했다는 통계가(대출책수는 10,323,699권으로 오사카시민 1인당 연간대출책수는 3.7권)산출된다. 그 이유는 오사카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억9천만엔 수준인데 이것을 시민 1인당 도서구입비로 환산하면 112.2엔일 정도로 일본평균 수치에 비하면 도서관의 기본 콘텐츠는 낙후되어 있다. 아마 최근 일본의 불경기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 나라(奈良)현립도서관

일본 역사의 고도인 나라시 나라(奈良)현립도서관(<http://www.library.pref.nara.jp>)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라현립도서관을 방문한 이유는 21세기를 향한 전자도서관으로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중앙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중앙도서관은 서고를 로봇으로 관리하는 자동 시스템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축건물의 전체도면이 흡사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고분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한다. 나라시의 전통과 중앙도서관 건물의 상징을 연계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 나라도서관 관계자도 이 질문에는 미소로 답하였다. 나라현립도서관은 보존가치 중심의 자료를 주소장자료로 구성하고 기타 30개의 시립도서관들은 일반자료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나라현 인구는 약 140만명이고 나라시 인구는 35만명이 되는데 나라시민을 위한 나라시립도서관은 별도로 운영된다고 한다.

나라현립도서관은 나라현의 대표도서관이고 나라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나라현 공공도서관 협력을 위하여 나라현 도서관 관장회의 및 사서연수 목적의 모임개최를 연 3회 개최한다. 또 시(市)·정(町)·촌(村)의 기타도서관에 대한 협력업무 이외에 보존자료를 소장하여 각 도서관별로 이용 신청하게 하고 고문서, 희귀본 등의 자료는 연락차 운영으로 당일 열람 가능하다고 한다. 소장자료는 현재 31만권으로 100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록DB는 국제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구축하고 있으며, 소장자료 구성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향토자료는 직접 DB 구축한다. 보존자료는 데이터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 지방신문도 보존하고 고문자료 공동자료실, 신문 마이크로 필름, 명치시대이후의 행정서류 등을 외부 위탁하여 DB구축 중이다. 특이사항은 전쟁체험 학습을 위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4년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전쟁에 대한 올바른 전달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홈페이지에서 지역정보 서비스 검색이 되며 응급시 의료정보, 고령자지원, 장애인 지원의 킷 서비스 창으로 연계하며 도서관 소장 그림의 디지털화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데 처음 도서관현황 설명 시 앞으로 경기도 중앙도서관 신축에 필요 할 지 모르니 가능하다면 새로운 중앙도서관의 상세한 도면을 부탁하였는데 관장님이 복사본을 주면서 4년 후에 또 방문하여 새로운 중앙도서관을 꼭 볼 것과 한국관련 전쟁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도쿄도립 다마(多摩)도서관

다마도서관은 1987년 개관하여 도쿄도립중앙, 히비야(日比谷)도서관과 함께 삼위일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1973년에 시작된 도립중앙도서관(장서 150만권, 잡지10,000여종 소장)은 23개 특별구와 섬 지역을 담당하고 다마도서관(장서 70만권)은 도쿄도의 26시(市) 7정(町) 8촌(村)을 담당한다. 히비야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다마도서관과는 다르게 일반이용과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908년에 건축된 도서관이라 올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내진 개수공사로 휴관중이다.

도립 3개 도서관(사서 161명)은 도쿄도가 직접 운영하는데 주요업무는 도쿄도의 389개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과 동경도민들의 요구에 따른 연구조사로 18세 이상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히비야는 제외). 다마도서관은 협력과(관리계, 기획협력계, 자료계)와 정보서비스과(참고조사계, 신문잡지계, 행정향토자료계)로 조직 편성되어 동경도의 시·정·촌 외곽지역을 7개 코스로 편성하여 주1회 차량순회 봉사한다(기획협력계에서 사서4명, 촉탁7명이 담당). 상호업무 시행은 1973년도에 도립중앙도서관 설립 후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도립도서관도 일반 공공도서관들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나 시·정·촌에 자립적 지역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으므로 도립도서관의 역할로 특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1987년부터는 신체제화하면서 협력업무가 다마도서관의 중심업무가 되고 있는데 상호대차의 경우 시·정·촌간은 서로 대차하며 다마도서관은 도민 직접대차 없이 지원만 하고,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역에는 도립도서관에서 구입, 일괄대출을 해 주며 신축도서관의 경우에는 경영조언도 하고 있다.

ISBN을 키워드로 한 종합목록을 작성, 배부하여 소장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서명, 저자 검색은 불가능) 각종 정보지 발행사업을 전개한다(협력소식, 도서관보, 예약정보, 신착도서안내, 찾고있습니다 등). 2000년도에 40,000권 이상 대차하였고 23개 구에서 13,592권 상호대차 하였다.

도쿄도립도서관들은 시설이 인근의 수도권 신도시지역에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들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새로운 중앙도서관 신축을 구상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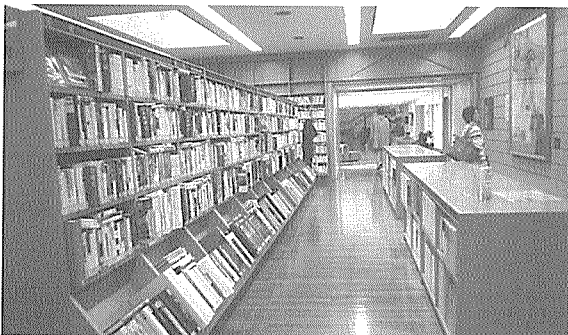
### 우라야스(浦安)시립중앙도서관

인구가 130,000명 정도이며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는 치바현 우라야스(浦安)시립중앙도서관(<http://www.city.urayasu.chiba.jp>)을 방문하는 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디즈니랜드로 가는 차량으로 고속도로는 복잡하였다.<sup>2)</sup>

우라야스시는 중앙관을 중심으로 분관까지 7개의 도서관이 있어 시민 90%정도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접근이 가능하다. 시민 1인당 대출권수가 전국 1위로, 일본 전체로 볼 때 도서관이용비율이 보통이 10~20%이고, 중간이 30%인 것에 비하여 우라야스는 60%에 이르고(우리나라는 2~3%), 시민 1인당 연간 12~13권을 대출하여 복유립 수준을 자랑한다. 장서는 7개관이 모두 90만권 정도이며 바로 이웃에 있는 도쿄도민은 자료대출이 불가하다고 한다. 대출책수는 연간 1,584,214권이

상호대차 6만건, 참고질의 10만건에 이를 정도로 높은 도서관이용률을 자랑한다.

연간 장서구입비는 연간 1억엔 정도이며(오사카 24개 도서관의 33% 수준) 직원 구성은 43명(사서42명)으로 서무행정을 보는 총무까지 사서



〈우라야스시립중앙도서관 자료실〉

2) 항상 과천대공원이 있는 과천시 과천도서관 건축시기와 모형이 비슷하고 주변환경이 과천시 모든 것과 비슷한 우라야스시는 관심대상이었다. 언젠가 과천도서관과 우라야스도서관을 비교하면서 한일양국의 공공도서관을 조명하는 글을 쓸 계획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sup>3)</sup>

서고 내에는 전문도서가 많고 책·결상과 탁상 조명장치가 되어있으며 노트북이나 케이블TV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있다. 보존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하며, 매주 1,000~1,500여권의 신간을 구입한다. 구간 중 선별하여 보존하고 버리는 책<sup>4)</sup>은 요청하는 시민에게 주고 나머지 중 아시아 각국의 요청 시 보내준다고 한다.

자료 구입은 신간도서를 서점에서 중앙관에 진열하면 분야별 담당사서들간 수서모임협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분관에서도 중앙관에 와서 선정하는데 도서관을 7가지 색으로 구분한 색지를 선정 도서에 넣으면 도매상에서 마크작업 후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반입하게 된다. 예산배정은 도서관별 이용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정이 되어 예산 한도 내에서 자료 수서를 하고 지출은 중앙관에서 일괄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 주요 추진 방침을 최근 “성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로 전환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인 대출이 어린이보다 6배나 높아졌다고 하는데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근로대상을 위한 서비스와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방안을 연구하여 현재 중앙정부의 경제산업성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최초의 도서관이 되었다. 또 앞으로는 시의 중소기업 보조금도 연계하고자 계획 중이다.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지원,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 봉사는 방문봉사 중심으로 평일에 1일 3~4회씩 유아원, 보육원, 학교로 직원이 방문하여 스토리텔링, 책소개, 북토크 등을 실시한다. 장애인 봉사는 자료의 재택봉사와 직업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하고 맹인을 위한 녹음도서, 점자도서와 약시자를 위한 문자확대기를 비치하고 있다. 장애자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면 연수 후에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봉사자나 장애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면 차량지원과 안내를 받는다. 도서관은 미국의 공공도서관처럼 “도서관 친구의 회”<sup>5)</sup>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도서관지원을 위한 도서관 응원단(시 예산 촉구 등)이 외곽에서 도서관을 지원하면서 시청이나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린이실과 성인실은 일체형 구조로 서가 등이 낮게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홀이 더욱 넓고 편안한 분위기이며 여유공간이 풍부해 휠체어로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료를 고를 수 있게 배치하였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1대 있으나 도서관 접근이 도보 10분 이내이므로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1994년도에 자료를 보내 주신 그 당시 관장님(磯野嘉子)의 안부를 물어 보니 2년 전에 도서관장에서 인근 대학에 교수로 부임하셨다고 한다. 지금 관장님은 찬찬한 언조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였는데 사서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하니 도서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마인드가 있어 보였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공공도서관을 많이 연구한 경험이 있는 듯 하였다.

## 이찌가와(市川)시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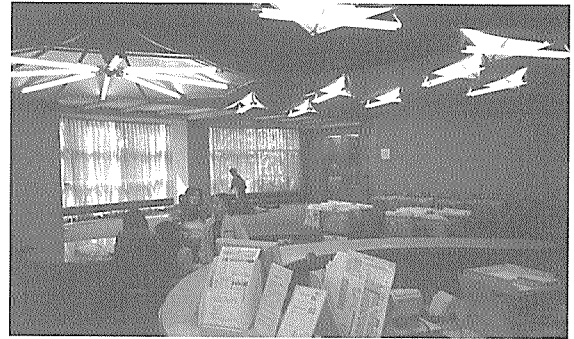
우라야스시 바로 옆에 위치한 인구 44만의 치바현 이찌가와(市川)시의 시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였는

3) 우라야스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예산업무는 사서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연간 50,000권 구입하는 반면, 20,000~30,000여권을 폐기한다.

5) 자립, 자율적 시민모임으로 미국의 힐러리 前대통령 부인도 자기 지역에서 한때 이러한 모임의 회장이었다고 한다.

데 처음 방문교섭 시 토요일 오후라 안내가 어려우니 그냥 돌아만 보고 가라고 해서 건물시설만 보기로 했다. 이찌가와중앙도서관은 일본 문부성이 지정한 독서교육시범지역의 중앙도서관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지만 다음 기회에 살펴 볼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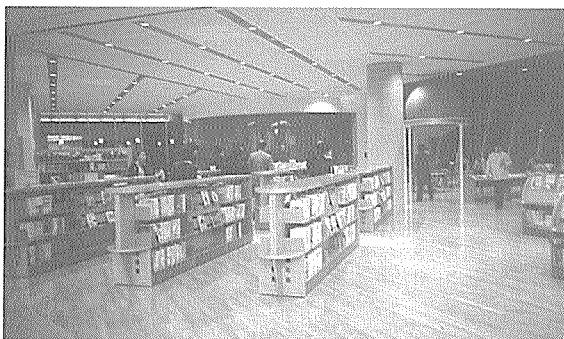
〈이찌가와시립중앙도서관 어린이실〉

총공사비 125억엔이 투자되어 1994년도에 개관한 미디어 파크(MEDIA PARK ICHIKAWA)라고 하는 19,648㎡ 규모의 생애학습센터에는 중앙도서관, 영상문화센터, 교육센터, 중앙어린이도서관등이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갈매기를 상징한 천장의 전등, 파도같은 안내 데스크와 그 위에 있는 깃발 모양의 전등, 피로도를 낮추기 위하여 조도에 따라 바닥 카페트 무늬를 사선으로 배치한 중앙어린이도서관(1,655㎡) 그리고 큰 삼각형 안에 물음표(“?”) 하나를 그린 안내가 돋보이는 사서가 상주하는 레퍼런스 데스크와 시정정보 코너 벽면 서가마다 가로등식 전등 설치도 특색이다. 2층 영상문화센터(2,770㎡)는 오디오, 비디오 부스를 설치하여 대출 불가자료에 대하여 시청하도록 하였고, 3층은 교육센터(2,102㎡)로 사서직원, 교직원 연수와 부적응아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 치바(千葉)시립중앙도서관

이찌가와시 옆에 있는 인구 87만의 일본 전형의 중도시인 치바현의 현청소재지인 치바시에 소재한 치바시립중앙도서관은 토요일 오후 3시경에 방문했는데 마침 관장님(狩野誠)이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정문에서 영접을 하여 주셨다.

처음에는 현립도서관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도서관이 건립된 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완공한 시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일본에서 박사과정 연구중인 조재순 사서의 권유로 방문이 성사되었다. 치바(千葉)시립중앙도서관(<http://www.library.city.chiba.jp>)은 치바현 내에



〈치바시립중앙도서관 열람실〉

서 최대규모의 도서관(10,275㎡)으로 178억엔이 투자되었다고 한다. 시에서는 도서관을 현대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생애학습의 거점센터로 육성하겠다는 4개년 계획에 의해 중앙도서관과 생애학습센터를 복합 건물로 2001년 5월에 개관하였다.<sup>6)</sup> 주력사업을 비즈니스형으로 하고 문화공용형 도서관에서 연구·해결형 도서관, 지역연구를 위한 도서관으로 특화하고, 재정적으로

6) 도서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생애학습센터는 도서관과는 별도로 계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어려운 시대에 국회도서관 등과 네트워크화하여 부족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점 등에서 다른 도서관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라야스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성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시간을 저녁 17시에서 21시로 연장하여 직원과 촉탁직원, 임시직원이 3교대 파트타임으로 순환 근무하고 있다.

치바시에는 32개 분관이 있으며 도서관간 온라인화가 되어 인터넷으로 시설, 장서목록을 공개하며, 타 도서관에서 신청시 메일카(이동차)로 전달한다. 서고운영은 일본 공공도서관에서 최초로 3억6천만 엔을 투입한 수용능력 100만권의 자동출납서고시스템을 도입, 검색에 2분 소요되며, 야간 반납시 컨베이어로 자동 배가된다.

계획 장서능력이 총 130만권으로 분관 소장이 30여만권이며 신착도서와 이용이 많은 도서만 개가제로 운영하고 보존성 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한다. 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리한 시설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에 의한 검색, 시각 장애인 음성안내, 책의 문자를 음성 변환하는 장치, 소리 및 진동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 개인실 5개소, 학습실과 그룹 학습실 등이 있고 400석의 열람석이 여유롭게 배치되었는데 이 곳에서 우리나라처럼 개인공부만 하는 열람실도 100석 규모가 별도로 설치된 것이 특이하였다. 좀 의아해서 나중에 질문한 결과 도서관 관장님이 다른 도서관과 달리 행정직관장이었다. 도서관에 대한 의욕은 상당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전형적인 일본 공무원의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어린이 대상의 토킹 서비스실과 신문·잡지 150종을 포함하여 총 1,000여종 비치한 옥외 독서 테라스와 사방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카운터를 중심에 두고 그 안쪽 공간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사무공간과 지하 자동출납 서고가 연결되도록 배치한 것이 인상적이다.

## 오사카(大阪)부립도서관

오사카(大阪)부립도서관(<http://www.library.pref.osaka.jp>)은 오사카부(府)의 중심인 동오사카시(東大阪)에 위치하여 자동차로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접근이 쉬운 중심도서관의 이상적 위치로 지하철과도 쉽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 도서관은 전산화된 시스템과 상호협력 중심의 도서관으로 1996년 5월 개관(연면적 30,770㎡)하였다. 만약 경기도에도 중앙도서관이 설립된다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지하철이 가까운 지역이 최적일 것이라는 그 동안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실 도쿄 지역 사서들도 도쿄중앙도서관을 오사카부처럼 건립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장기불황으로 지연되고 있어 일본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최대규모 도서관이 오사카지역에 있다는 것은 도쿄에서 볼 때 자존심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지하 2층과 지상 3층 건물로 300만 장서 수용



〈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 전경〉

능력인 부립중앙도서관은 직원 95명중 75명이 사서이고 자료구입비 1억1천5백만엔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6억7천3백만엔 규모이다. 특이한 것은 자료정리비가 845만엔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상당부분 자료정리는 아웃소싱하고 있었다. 도서 구입은 매주 5개 서점에서 신간을 도서관 서가에 비치하면 사서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고 도서의 가격은 국가 지정으로 할인제도가 없다고 한다.

개방적인 현관은 분실방지 시스템으로 보완했으며 잡지열람, 상설 전시코너와 이용도 높은 자료실이 구비되어 있고 밝고 재미있게 꾸며진 어린이자료실은 그림 그리기,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7개의 대면 낭독실, 음성인식 컴퓨터와 녹음실, 부대시설로 레스토랑과 커피숍이 있으며 종합안내 및 뉴미디어 창구에는 터치스크린으로 배가워치 검색이 가능하다.

영화관람, 전통, 역사 감상을 위하여 AV시스템을 갖추고 로봇이 대출이 안되는 400여종의 비디오와 1,200개의 CD-ROM을 검색하고 배출하여 시청하게 하고 있다.

10만권의 자료가 있는 3층의 사회과학 열람실(사회, 교육, 상업)은 여유가 있는 레이아웃으로 창 옆의 밝은 열람공간과 오픈 배란대를 조성하였고 전체 서가 사이를 넓게 배치하여 휠체어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했다.

오디오, 비주얼 룸의 천장 모서리마다 노숙자 악취 제거용 슛을 비치하였는데 장기불황에 따른 노숙자증가로 도서관 관계자들의 고심이 많은 듯 했다.

1층은 3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무대가 있다. 보존서고<sup>7)</sup> 자료는 이용자가 팩스로 자료를 신청하면 서고의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분야별로 색깔이 구분되어진 서가에서 자료를 찾아 박스에 담아 컨베이어 레일로 각 카운터에 보낸다. 보존서고에는 향온 향습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국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오사카부립의 또 한 개 도서관인 1904년에 설립된 나카노시마(中之島)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은 우선 오사카부내 99개 공공도서관에 협력대출과 시·정·촌 도서관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쿄중앙도서관과는 달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서비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오사카 아사이도서관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사카시립 24개 도서관의 장서수준이 시민 1인당 1권 수준으로 일본 평균수치에도 미달하는,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열악한 것을 오사카부 차원에서 보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 오사카시립 중앙도서관

21세기 고도정보화·국제화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설립하였다고 하는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http://www.oml.city.osaka.jp>)은 오사카시의 24개 도서관 가운데 중심도서관으로 1996년 7월에 개관하였다. 225억엔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일본 공공도서관에서 최대규모(지하5층·지상6층, 연면적 34,532㎡)를 자랑한다. 특히 지하철역이 지하 1층과 연계되어 있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7) 서고의 길이가 가로 세로 각각 100미터이다.



1997년 7월 15일 하루 입관자가 12,085명이고 이날 대출된 책이 16,825권이라는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개관 147일(1997.1.9.)만에 입관자 100만을 돌파할 정도로 오사카시의 문화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사카시립도서관 전체직원은 209명인데 그중 사서가 157명이고 이 가운데 중앙도서관의 사서는 66명이고 나머지는 23개 분관에서 근무한다. 장서는 120만권 규모인데 지하1층에서 3층까지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 동화구연실〉

의 열람실에는 약 43만권이 배열되어있고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보존서고에 나머지가 소장되어 있다. 총 장서 수용능력은 330만권이며 연간 40,000권 정도 증가된다고 한다. 귀중서고는 전체가 오동나무로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훈증 처리하여 살균하며 전 자료를 이미지 처리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바닥재는 일본의 대개 도서관이 카펫인데 비해 OA용 바닥으로 밑에 배선시설이 용이하도록 목재로 되어 있다. 지하 1층과 1층이 대출 중심이 되어 있으며 시청대가 있어 자료의 내용을 미리 확인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로 만화 코너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많다.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면서 회원카드를 넣고 예약하면 직원이 찾아서 예약서에 별도 비치하여 대출하여 준다. 이동문고는 서무과로 편성하고 물류기지인 이동차량실은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며 매일 3대의 차량이 운전 점임의 사서 5명에 의해 대상별 월 1회 정도 순환 일정에 맞추어 운행된다. 도서관 출입통로 공간은 "시민 갤러리"로 상설 전시장 운영하며 현재 오사카시 100주년 기념 사료 사진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이 갤러리는 평소 1일 7,000여명이 출입하는 곳으로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 전시장소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오사카시에 많은 한국인(조총련계도 포함)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1층에 한국자료(북한자료도 포함)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다. 일본 공공도서관에는 대부분 한국자료가 있지만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이 가장 많은 한국자료를 개가제로 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의 역사가 깊은 일본의 특성으로 오사카지역도 도쿄지역처럼 나름대로 도서관발전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서관측에서 흔쾌히 오사카도서관 50년사(보존용자료) 1권과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 안내비디오(한국어 해설) 1개를 기증하여 감사를 표했다.

## 연수소감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졌던 점은 두 가지였다. 같은 공공도서관이라도 설립 주체에 따라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과,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 다양한 가운데에도 모두가 연계되어 최종 목적은 이용자 서비스에 충실하려는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인 도(都)·도(道)·부(府)·현(縣)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정(町)·촌(村)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간 기능 분담체제가 그 바탕이 되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행정체계 정비로

이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와 비교하여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러운 점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도서관을 돌아보면서 서로 1870년대 도서관 신사유람단이라고 농담하던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우리 경기도립도서관의 역할을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도립도서관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시립이니 도립이니 구별없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주력해 왔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들이 급속히 늘어나 각각의 역할에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모두가 이야기 할 때에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도립도서관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 도 단위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도서관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일환으로 아쉬운 대로 경기도사이버 중앙도서관을 내세워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차별성이 없으면서도, 물론 내실과 질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직원 수는 몇 배가 많고 경력과 직급도 대체로 높은 고급 인적 조직을 가졌으면서도 다른 곳과 차별될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기가 학교도서관과 지자체 단위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해주며 주요자료를 보존하는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에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일원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시작으로 하고, 참고자료와 연구지원을 위한 전문자료 확충에 주력하여 차별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대차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 단계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번 연수 중에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도서관총합전도 관람하였다. 일본도서관 관련산업의 박람회인데 특히 도서관 아웃소싱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다. 자료정리, DB구축과 인력파견 업무를 하고 있는 TRC(도서관유통센터)코너가 인상적이었다. 자료정리 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해 처음에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방문하는 도서관마다 정리업무는 외부업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문사서는 한정되어 있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본공공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다.